

◇정동기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9일 오전 11시 원주 선주리 21CC에서 제6회 건설협회 도회 회원사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

효자종목 육상·역도·수영 '이름값'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강원도가 올해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9위에 올라 7년 연속 한 자릿수 등위 수성에 성공했다.

17개 시·도가 출전한 가운데 도 선수단은 도에 뒤졌던 대구가 개최지 프리미엄으로 종합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종합 8위권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위권이지만 도 선수단은 도세나 예산 등의 여건으로 볼 때 선전을 펼쳐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전국에 떨쳤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체전에서도 각 종목 및 팀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 상별 또는 박수와 지원을 받아야 할 팀과 적절한 대책마련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도내 체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체전에서도 전통적인 효자종목, 육상과 역도 수영 등 '빅3'가 강원체육의 선전을 이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9위

예산 등 여건 감안하면 선전

검도·농구·스쿼시·야구 4종목

올해 1점도 얻지 못해 아쉬움

끌었다. 대학부 선수 부족과 팀 해체 등 어려움에도 강원육상은 마라톤 트랙 필드에서 모두 2,703점을 획득, 고군분투하며 제 소임을 다했다. 하지만 실업팀 원주시청과 강릉시청의 부진은 욕에 티로 남는다.

10년 연속 종합우승을 놓쳐 아쉬움이 남는 역도도 2,870점을 거둬들이며 강원체육이 7년째 한 자릿수 등위를 유지하는 기반을 쌓았다.

통산 20번째 우승컵을 노렸지만 사재혁의 부상 등이 발목을 잡은 강원역도는 향후 쏟아져 나올 도 출신 선수의 영입이 기록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과제로 떠올랐다.

수영은 팀 해체란 악조건에서도 종합우승을 거둔 수구(955점)와 무려 2,000여점을 거둬들이는 경영 및 다이빙의 선전으로 강원선수단의 버팀목

이 되고 있다. 5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강릉시청 축구와 선수 보강을 통한 전력 상승 등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전력 럭비팀, 하이트진로와 강원체고의 활약으로 사실상 역대 최고점수를 따낸 양궁, 1,300여점을 몰아친 사격, 준우승을 차지한 승마 등이 강원체육의 힘이 됐다.

하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부진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으며 강원체육이 폭넓은 분야에서 점수를 획득, 상위권 진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검도 농구 스쿼시 야구 4종목은 올해 단 1점도 얻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검도와 스쿼시는 지난해에 이어 무득점에 그쳐 인제군청 검도의 경우 우수선수 확보, 야구와 스쿼시는 팀 창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사실상 준프로급인 실업팀의 경우 수년째 성적부진을 면치 못하는 해당지는 결과를 놓고 사기와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심판을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지역 건설업 수주량 확대 노력해야”

철원 건설업 활성화 간담회

저가 하도급 문제 해소 논의

철원군은 18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서경원 부군수, 철원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군차원 발주사업 적극 추진 등을 통

한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방식을 활용해 하도급 부조리 척결과 저가 하도급 문제 해소 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건설 공사의 품질향상 도모하고, 사업발주전 설계부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물론 공동수급 방식을 활용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

회를 확대해야 지역건설경기 침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건설경기까지 침체일로로 걸으면서 지역상권도 약화되는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지역건설경기 침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원/진교원